



## 피해자 비난과 공동체 탄력성에 관한 연구

: 재난 유형과 죽음의 현저성을 중심으로

함승경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

김영옥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교수\*\*

방어적 귀인 이론과 공포 관리 이론에 근거해서 재난 유형과 죽음의 현저성에 따른 피해자 비난의 차이를 분석하고, 피해자 비난과 공동체 탄력성 인식 간의 관계와 재난 유형과 죽음의 현저성에 의한 조절 효과를 분석했다. 1)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죽음의 현저성의 영향을 재난 유형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의 현저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재난의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이 인적재난의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죽음의 현저성이 없는 경우에는 인적재난의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이 자연재난의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보다 높게 나타났다. 2)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공동체의 재난 탄력성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난에 대한 통제감을 확보하고자하는 동기로 발생하는 피해자 비난은 공동체의 재난 대응 능력에 대한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3) 죽음의 현저성은 피해자 비난이 공동체 탄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대해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논의했다.

**KEYWORDS** 피해자 비난, 인적재난, 자연재난, 죽음의 현저성, 공동체 탄력성

\* hamseungkyung@gmail.com

\*\* kimyw@ewha.ac.kr, 교신저자

## 1. 문제제기

미디어는 재난 정보를 전달하는 주요한 정보원이다(Iqbal, Ali, Khursheed, & Saleem, 2014). 재난 보도는 인간, 사회, 자연 환경에 미치는 재난의 영향력에 집중한다(Houston, Pfefferbaum, & Rosenholtz, 2012). 재난 영향에 대한 보도들 중 70% 이상이 빌딩, 주택 등과 같은 건물의 손실이나 붕괴를 다루었고, 약 37% 정도가 사망과 상해를 다루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재난 기사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재난으로 인한 손실과 붕괴, 사망과 상해, 그리고 피해자에 관한 미디어 보도는 재난 공중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재난 보도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외상을 겪을 수 있다(Ahern et al., 2002).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도 미디어 보도를 시청한 사람들도 죽음의 공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홍표·최윤경·이재호·이홍석, 2016). 이처럼 재난 공중들이 미디어 보도를 통해 심각한 수준의 재난을 접하게 되는 경우, 예측 가능한 세상에 대한 신념을 위협 받고, 공포 관리를 방어하는 능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

방어적 귀인 이론(defensive attribution)에 따르면(Shaver, 1985), 재난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을 대면했을 때, 사람들은 그와 같은 재난이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인지적 위협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비난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으로부터 자신들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통제감을 유지하고자 한다(Bell, Kuriloff, & Lottes, 1994). 방어적 귀인 이론에 근거한 피해자 비난은 유사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피해자와의 유사성이 높은 경우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감소한다. 피해자 비난을 통해서 피해자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자한다. 하지만 모든 위험한 상황에서 피해자 비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공포 관리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자존감과 세계관으로 대응한다(Greenberg, Pyszczynski, & Solomon, 1986).

자존감과 세계관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충 역할을 하는 심리적 구성물로, 불안과 위협으로 인한 각성을 줄이고, 죽음과 관련한 사고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킨다. 선행연구(Hirschberger, 2006)에 따르면 죽음의 현저성은 경미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보다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비난을 증가시킨다.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신체적 물리적 취약성을 자각시키고, 죽음의 현저성은 취약성을 거부하는 편향적인 추론을 하게 하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비난이 증가한다. 더욱이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사람들의 정의사회 신념을 위협한다(Landau et al., 2004). 사람들은 정의사회 신념을 회복하기 위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비난을 높인다.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피해자 비난을 통해 재난과 같은 예기치 않는 사건에 대한 통제감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취약성을 방어할 수 있었는가? 최근 재난 연구에서 공동체가 입은 손실을 회복하고 적응하는 능력으로서 공동체 탄력성(community resilience) 개념을 주목하고 있다(Walter, 2004). 모든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해 대응 능력이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공동체 탄력성은 충격을 완화하는 공동체의 능력(Adger, 2000), 재난 발생 시 그 영향을 완화시키고, 혼란을 최소화하며 회복하는 능력(Bruneau et al., 2003)으로 정의된다.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예기치않는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취약성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피해자 비난은 재난에 대한 통제성과 대응 능력 인식과 관련된다. 이 연구에서는 피해자 비난과 공동체의 재난 탄력성 간의 관계를 분석해 피해자 비난의 사회적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재난은 일상을 파괴하는 충격적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의 고통과 대면해야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미디어 보도를 통해 재난을 경험하는 공중들의 피해자 비난을 증가시키는 변인들을 분석하고, 피해자 비난과 공동체 탄력성 인식 간의

관계에서 피해자 비난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탐색해서 재난의 공포와 피해로부터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 문헌 연구

### 1) 재난 보도와 그 영향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관점에서, 재난 연구는 위기와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집중되어 있다(Houston et al., 2012). 위기 커뮤니케이션은 조직 또는 공공관계 연구에 근거하고, 위기로부터 조직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반면,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위험에 대한 개인적 이해와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Reynolds & Seeger, 2005).

미디어는 재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주요한 정보원이다(Iqbal et al., 2014). 자연 재난에 대한 미디어 보도 연구는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자연 재난에서 권위에 대한 묘사를 분석하거나(Littlefield & Quenette, 2007), 재난 보도의 이미지 사용을 분석하기도 하였다(Borah, 2009).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의 자연재난 보도를 분석한 결과, 재난이 일으킨 인간, 사회, 자연 환경에 대한 영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Houston et al., 2012). 연구에 따르면 재난의 영향에 대한 보도 중 70% 이상이 건물, 주택, 그 밖의 건물들의 손실이나 붕괴를 다루었고, 사망과 상해를 다룬 보도는 36.79%를 차지했다.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체는 개인들이 85.7%로 나타났고, 거의 모든 재난 기사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재난으로 인한 손실과 붕괴, 사망과 상해,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다루는 미디어 보도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재난과 관련한 보도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외상을

겪을 수 있다(Ahern et al., 2002). 911테러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시청하거나, 폭발 장면을 여러 번 시청한 사람들에게 심리적 외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침몰 사건 미디어 보도를 시청한 사람들도 죽음의 공포가 높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홍표 외, 2016). 이처럼 미디어를 통해 피해자들의 상해 또는 사망과 관련한 정보를 시청할 경우, 사람들은 그러한 피해가 본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고 자각하게 되며, 정의사회에 대한 신념이 위협받고, 공포를 관리하는 방어 능력이 훼손될 수 있다. 재난 보도가 재난 공중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재난 보도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재난으로부터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Norris et al., 2008).

## 2) 방어적 귀인과 피해자 비난

비난에 대한 판단은 행위자가 사건을 발생시켰는지, 발생시켰다면 의도적으로 발생시켰는지, 그리고 행위의 이유가 정당한지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Malle, Guglielmo, & Monroe, 2014). 규범을 일탈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관찰자는 사건이 의도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행위가 의도적이라고 판단하면, 행위자의 행위 이유를 판단하는데, 행위가 정당하다면 낮은 수준의 비난을 하지만, 행위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높은 수준의 비난을 한다. 만약 행위가 의도적이지 않다면, 사건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사건을 방지할 수 없었다면 비난의 수위는 낮아지지만 사건을 방지할 수 있었다면 비난의 수위는 높아진다. 이처럼 비난은 규범적 의사결정 단계(normative decision stage)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비난 판단은 규범적 단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엘리케(Alicke, 2000)는 비난은 인지적 측면 뿐만 아니라 동기적 편향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과실통제모델(culpable control

model)을 제시했다. 과실통제모델의 주요 개념은 사건과 그 사건에 관계된 사람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부정적인 감정 반응인 즉각적 평가(spontaneous evaluation)이다. 즉각적 평가는 행위자의 의도, 행위, 결과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데, 행위자에 대한 비난 욕구를 활성화시켜 관찰자가 행위자의 사건 통제 수준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즉각적 평가가 행위자의 통제 수준을 변화시키는 사례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이다. 고통 받는 피해자는 정의 사회에 대한 신념을 위협하는데, 이러한 위협은 사건에 대한 부정적 감정 반응인 즉각적 평가를 일으킨다. 즉각적 평가는 심지어 피해자가 사건을 통제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 수준을 높게 평가하게 하는 편향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비난을 정당화한다.

방어적 귀인 이론(defensive attribution)에 따르면(Shaver, 1985), 재난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면했을 때, 관찰자들은 그와 같은 불행이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인지적 위협을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불유쾌한 사건 발생의 가능성은 부정적 감정 상태를 유도하고 인지적으로 방어기제를 활성화시켜 자신을 보호하게 된다. 방어적 귀인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다(Bell et al., 1994). 먼저 피해자 비난은 불행의 가능성으로부터 관찰자 자신을 보호하고, 유사한 미래 사건으로부터 자신들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우연히 발생하게 되는 사건에 대한 통제감을 유지하고, 죽음과 취약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피해자들과 자신의 운명이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한다.

방어적 귀인 이론은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 근거해 관찰자의 행위에 대한 귀인을 설명한다(Herzog, 2008). 사회 정체성 이론(Tajfel, 1981)에 따르면 사람들은 우리와 그들로 대상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고,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집단을 상대 집단보다 높게 평가하려고 한다. 내외 집단으로 집단을 범주화하는 것만으로도 내집단 편향이 일어나고 외집단을 비하시킬 수 있다. 내집단 편향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는

자이론중이다. 자기 범주화 이론(Turner, Hogg, Oakes, Reicher, & Wetherell, 1987)에 따르면 성별이나 지역 등의 차이를 잘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통해서 자기 범주화 또는 타인 범주화가 발생한다.

방어적 귀인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이 유사성이다. 관찰자와 피해자 간의 유사성이 중요한데, 유사성은 상황적, 개인적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Shaver, 1985). 상황적 유사성은 관찰자들이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반면 개인적 유사성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피해자와 유사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방어적 귀인 이론에서 관찰자들은 피해자와 자신의 유사성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사건에 대한 피해자 귀인을 낮게 한다(Brewer & Brown, 1998). 방어적 귀인에서 개인적 유사성은 여러 가지 개인적 특성들에서 나타나지만,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성은 젠더이다(Arce, Farina, & Sobral, 1996). 예를 들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폭행이나 강간 등의 사건에서 남성보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여성 관찰자들은 여성 피해자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개인적 유사성에 비해서 상황적 유사성에 따른 방어적 귀인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상황적 유사성은 관찰자들에게 위협이 되는데, 관찰자 자신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황적 유사성이 높아지고, 피해자 비난이 감소하게 된다. 상황적 유사성에 따른 피해자 비난의 차이는 재난 유형에 적용될 수 있다.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은 통제 가능성으로 구분된다. 인적재난은 누군가가 통제를 하지 못해서 발생한 재난이고, 자연재난은 누구라도 통제할 수 없는 재난이다. 이런 이유로 자연재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상황적 유사성이 높다. 따라서 상황적 유사성이 높은 자연재난의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상황적 유사성이 낮은 인적재난의 피해자에 대한 비난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문제 1) 재난유형에 따라 피해자 비난에 차이가 있는가?

### 3) 죽음의 현저성과 피해자 비난

공포관리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 Greenberg, Pyszczynski, & Solomon, 1986)에 따르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심리적 보호를 얻기 위해 자존감과 세계관으로 방어한다. 세계관은 유한한 인간 삶에 질서, 안정 그리고 영속성을 부여하는 집단적 상징체계로, 죽음의 공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공포관리 이론은 죽음의 현저성 가설 검증을 통해 지지되었다(Greenberg, Solomon, & Pyszczynski, 1997). 죽음의 현저성은 자신의 세계관을 지지하는 대상이나 사람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하지만, 이를 위협하는 대상이나 사람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한다. 죽음의 현저성은 시민참여(Leiserowitz, 2004)와 자선단체 기부 의향(Ferraro, Shiv & Bettman, 2005), 기부에 대한 호의적 태도(Jonas, Sciimmel, Greenberg, & Pyszczynski, 2002) 등과 같은 친사회적 행위를 증가시킨다. 타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친사회적 행위는 문화적으로 존경받는다. 따라서 친사회적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높여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죽음의 현저성은 장애인들에 대한 공감을 낮추고(Hirschberger, Florian, & Mikulincer, 2005), 장기기부 등과 같은 이타적 행위를 감소시키기도 한다(Hirschberger, Ein-Dor, & Almakias, 2008). 죽음의 현저성이 친사회적 행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은 어떤 차이 때문일까? 친사회적이고 이타적인 행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움이 전달될 때 이타적인 가치와 선한 의도가 반영된다.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동기가 이타적인 의도를 넘어서게 될 때 친사회적 행위가 방해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돕거나 장기 기증과 같은 행위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취약성과 죽음을 상기시켜, 공포관리 과정을



방해한다. 이런 이유로 죽음의 현저성은 물리적 죽음을 상기시키는 대상에 대한 친사회적 행위를 감소시킨다.

공포관리 이론에 따르면 죽음의 현저성은 피해자 비난을 증가시킨다(Hirschberger, 2006).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인간에게 내재한 신체적 물리적 취약성을 자각시킨다. 죽음의 현저성은 취약성을 거부하는 편향적인 추론을 유도하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비난 귀인을 증가시킨다. 더욱이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인과적 논리와 질서가 보장된다는 정의사회 신념을 위협한다(Landau et al., 2004). 따라서 사람들은 위협받은 정의사회에 대한 신념을 회복하기 위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비난을 증가시키게 된다.

죽음의 현저성이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이타적 행위와 친사회적 행위를 감소시키고 비난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재난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재난 피해자들은 재난 공중들에게 인간의 취약성을 자각시킨다. 죽음의 현저성은 이러한 인간의 취약성을 거부하는 편향적 추론을 하게 하는데, 피해자에게 재난 피해의 책임을 돌리면서 비난을 증가시킨다. 특히 자연재난의 경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통제가 불가능한 재난이다. 자연재난은 인적재난보다 재난 공중들에게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취약성을 높게 자각시킨다. 따라서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죽음의 현저성의 영향은 재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2 > 죽음의 현저성은 피해자 비난을 일으키는가?

연구문제3 > 죽음의 현저성이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은 재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4) 피해자 비난과 공동체 탄력성 간의 관계와 그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들

현대 사회에서 모든 재난을 예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적응적 관점에서 탄력성(resilience)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왔다(Walter,

2004). 공동체 탄력성은 동요를 흡수하는 공동체의 능력(Adger, 2000), 재난 발생 시 그 영향을 완화시키고, 혼란을 최소화하며 회복하는 능력(Bruneau, 2003)으로 정의된다.

노리스와 그의 동료들(Norris, Stevens, Pfefferbaum, Wyche, & Pfefferbaum, 2008)은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 모델에 근거해서 탄력성 모델을 제안했다. 이들이 제시한 탄력성 모델은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평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 평가 및 스트레스 반응 간의 관계 등 탄력성에 영향 미치는 다양한 조건을 제시했다. 홉폴(Hobfoll, 2006)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자원보존(conservation of resource) 이론을 통해서 설명했는데, 사람들은 유능감, 자긍심, 사회 경제적 상태 등과 같은 자원을 형성해서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탄력성 모델에 따르면 재난과 같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에서 개인들이 갖고있는 유능감, 자긍심은 탄력성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자원의 성격도 영향을 미치는데 자원들이 견고하고, 대체자원이 많고, 신속하게 제공되면 탄력성은 증가된다.

방어적 귀인 이론(Shaver, 1985)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재난에 대한 통제감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재난 피해의 책임을 돌리고 자신과 차별화한다. 재난에 대한 통제감을 확보하고자하는 동기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비난은 재난에 대한 대응과 회복 능력으로서 재난 탄력성 인식과 관련된다. 자연재난은 통제가 불가능한 반면 인적재난은 통제가 가능한 재난으로 피해자의 책임 문제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김영규, 1995).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은 피해의 가시성이 높고 피해자의 공통성이 높은 반면, 인적재난은 피해의 가시성이 낮고 피해자의 공통성도 낮은 특징을 보인다(Kasperson & Pijawka, 1985). 이러한 재난 유형에 따른 특성은 재난 대응과 회복 능력으로서 공동체 탄력성 인식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비난과 공동체 탄력성 인식 간 관계는 재

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죽음의 현저성은 규범과 가치에 대한 의존을 높 이면서(Gailliot, Stillman, Schmeichel, Maner, & Plant, 2008), 내집단의 정체성을 강화시킨다(Castano, Yzerbyt, Paladino, & Sacchi, 2002). 죽음의 현저성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유대교인들을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Greenberg et al., 1990). 죽음의 현저성은 미국인들에게 반미 성향의 작가에게 좀 더 부정적 반응을 보이게 했다(McGregor et al., 1998). 이처럼 죽음의 현저성의 내집단 편향 강화는 재난 맥락에서 피해자에 대 한 비난을 증가시키고 내집단의 공동체 탄력성 인식을 증가시켜, 피해자 비난과 공동체의 재난 탄력성 인식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문제4) 피해자 비난은 공동체 탄력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5) 재난 유형에 따라 피해자 비난이 공동체 탄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6) 죽음의 현저성의 유무에 따라 피해자 비난이 공동체 탄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

### 3. 연구 설계 및 주요 변인의 측정

####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죽음의 현저성과 재난 유형에 따른 피해자 비난의 차이와 공동체 탄력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설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2(죽 음의 현저성 : 죽음의 현저성 있음 vs 죽음의 현저성 없음) x 2(재난 유형: 인적 재난 vs 자연 재난)로 설계되었고, 모든 요인은 피험자 간 요인 으로(between-subject factor) 이루어졌다.

설문은 온라인 설문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설문 유형은 4가지였다. 재난 유형으로 아파트 붕괴와 지진 그리고 각 유형의 재난 시나리오에 죽음의 현저성이 있고 없음에 따라 4가지 설문지가 준비되었다. 설문지는 모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고, 설문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별과 연령을 인구 비례에 맞춰 65명씩 무작위 할당하였다.

설문 절차는 먼저,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 연구는 재난 발생 이후 공동체가 회복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라고 목적을 밝혔다. 이후 성별, 연령을 묻는 질문을 배치했고, 죽음의 현저성 제시는 장례식 이미지를 3초 동안 보여주고 자신이 죽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지를 짧게 서술하라고 요구했다. 죽음의 현저성을 제시받은 집단과 대조되는 집단에게는 계절과 관련한 이미지를 3초 동안 보여주고 다수의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한 치통 경험을 짧게 서술할 것을 제시했다.

죽음의 현저성이 단순히 부정적 감정 반응을 이끌어내는 처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 모두에게 PANAS(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Watson, Clark, & Tellegen, 1988) 분석을 통해 두 집단 간의 감정적 반응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후 죽음의 현저성 효과 조작을 위해 전환(distraction)을 제시했다. 전환을 처치한 것은 죽음의 현저성 제시 이후 문화적 세계관 방어가 일정 시간이 흐른 후 무의식 수준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환을 위해서 재난이나 죽음을 연상하지 않는 중립적인 기사를 제시하고 기사 내용에 대한 3개 퀴즈를 배치했다. 이 조작은 죽음의 현저성을 제시받지 않은 집단에게도 배치했다.

전환 제시 이후 재난 인적 또는 자연재난 기사를 제시하고 기사를 읽은 후 피해자 비난 그리고 공동체 탄력성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력, 직업, 소득, 정치적 성향,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 가족이나 동료의

죽음을 경험했는지를 측정하였다.

## 2) 변인 측정

### (1) 죽음 현저성(mortality-salience)

죽음의 현저성 처치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죽음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다수의 선행 연구들(Greenberg et al., 1990; Hirschberger, 2006; Landau et al., 2004; Rosenblatt, Greenberg, Solomon, Pyszczynski, & Lyon, 1989)에서 사용되었던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당신이 죽는다고 가정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와 “죽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감정을 간단하게 기술해주시시오” 등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대조 집단에게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하였던 “심각한 치통을 겪는다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와 “치통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감정을 간단히 기술해주시시오” 등의 질문을 제시했다.

### (2) PANAS와 전환(distraction)

죽음의 현저성 처치가 단순하게 부정적 감정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죽음의 현저성 처치 이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감정 상태를 묻는 PANAS(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Watson et al., 1988) 20개 문항을 제시했다. PANAS는 긍정적 감정 10개 항목과 부정적 항목 10개로 구성되었다. “지금 나는 (흥미로움, 흥분, 자신감, 열정, 자부심, 열의, 확고함, 집중력, 활기참, 정신이 맑음)을 느낀다”, “지금 나는 (괴로움, 혼란스러움, 죄책감, 공포심, 적개심, 짜증, 수치심, 불안, 초조함, 두려움)을 느낀다” 등의 진술문으로 제시했고, 각 문항마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죽음 현저성 효과는 죽음

과 관련된 생각이 대략 5분 정도의 짧은 지연 이후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Greenberg et al., 1994), 이러한 지연을 처치하기 위해 실험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참가자들에게 단어 찾기 퍼즐을 완성 과제를 제시한다(Goldenberg, McCoy, Pyszczynski, Greenberg, & Solomon, 2000).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실험 설문을 감안해서, 전환을 중립적 기사를 읽고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처치하였다. 기사는 설문 당시 최근에 작성된 문화 예술 관련 기사를 제시하였다. 기사 제시 이전에 기사를 읽은 후 기사 내용에 대한 질문을 제시해서 기사를 읽는 동안 기사 내용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무의식 수준에서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유도하였다.

### (3) 재난 유형

재난 유형은 발생 원인에 따라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하였고, 인적재난의 사례는 아파트 붕괴를 제시했고, 자연재난의 사례는 지진을 제시했다. 아파트 붕괴와 지진을 연구 사례로 선택한 것은 결과 측면에서 두 재난 모두 건물 붕괴와 인명 피해로 유사성을 갖기 때문에 재난 발생 원인에 대한 유형 간 차이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파트 붕괴 기사의 구성은 붕괴 현장 묘사, 피해자들의 고통 묘사, 아파트 붕괴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붕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기술하였다. 지진 재난 기사의 구성은 붕괴 현장 묘사, 피해자들의 고통 묘사, 지진의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지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기술하였다.

### (4) 피해자 비난

피해자 비난 측정은 강간 피해자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강간 피해 연구들에서 사용되는 피해자 비난 측정은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고 상황과 행위 요인으로 구분해서 측정하고 있다. 재난 피해자 비난을 측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재난 피해자의 상황과 행위 요인도 명확히 구분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비난 측정에서 일반적으로 우연적인 비난을 측정한 선행 연구들(Hirschberger et al., 2006; Van Prooijen & Van den Bos, 2009)에서 사용한 비난 측정 문항을 재난 상황에 맞게 재구성했다. ‘재난 상황을 피했어야했다’, ‘고통을 받는 것을 피해자들의 책임이다’, ‘피해자들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피해자들이다’, ‘재난의 결과에 책임이 있다’, ‘고통을 받는 것은 운명이다’, ‘재난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 등의 6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했다.

#### (5) 공동체 탄력성

공동체 탄력성은 “충격적 사건으로부터 회복되는 적응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Brown & Kulig, 1996). 쿨리그와 그의 동료들(Kulig, Edge, Townshend, Lightfoot, & Reimer, 2013)은 공동체 탄력성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지표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제안한 CRS(community resilience scale) (Kulig, Edge, & Joyce, 2008)와 선행연구들을 비교하면서 11개 문항으로 구성된 IPCR(Index of Perceived Community Resiliency) 측정 도구를 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1개 문항 중 9개 문항을 재난을 대입해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나의 공동체 사람들은 서로 돕는다’, ‘나의 공동체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이다’, ‘나의 공동체 사람들은 가치관과 이상향이 비슷하다’, ‘나의 공동체 사람들 사이에는 자긍심이 있다’, ‘나의 공동체의 리더들은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나의 공동체는 강한 공동체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나의 공동체의 변화들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체 문제에 참여한다’ 등의 문항을 지진과 아파트 붕괴 재난 상황으로 재구성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4. 결과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성인이다. 조사에 회수된 260개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작성된 10개 응답지를 제외하고 총 250부를 분석하였다. 죽음의 현저성이 있고 아파트 붕괴 시나리오 설문에는 65명, 죽음의 현저성이 없고 아파트 붕괴 시나리오 설문에는 63명, 죽음의 현저성이 있고 지진 시나리오 설문에는 57명, 죽음의 현저성이 없고 지진 시나리오 설문에는 65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연령은 20대가 56명, 30대가 69명, 40대가 63명, 50대가 62명이었고, 참가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122명, 여성 128명으로 분석되었다.

변인들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 비난은 크론바흐 알파값이 .782로 나타났고, 공동체 탄력성은 .895로 나타나, 분석이 가능한 수준이라 판단하였다. 피해자 비난 6개 문항의 평균은 2.25, 표준편차는 0.75로 분석되었고, 공동체 탄력성 인식을 측정한 9개 문항의 평균은 3.07, 표준편차는 0.63으로 분석되었고,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피해자 비난과 공동체 탄력성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의 현저성을 처치를 받은 실험집단과 처치의 경험을 제시받은 통제집단 간의 감정적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처치 이후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평가하였다. 두 집단 간의 감정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 감정에서 죽음의 현저성을 처치 받은 실험 집단( $M=2.88$ ,  $SD=0.65$ )과 죽음의 현저성을 처치 받지 않은 통제집단( $M=2.80$ ,  $SD=0.62$ )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948$ ,  $p=.344$ ). 부정적 감정에서도 죽음의 현저성을 처치 받은 실험 집단( $M=2.37$ ,  $SD=0.91$ )과 죽음의 현저성을 처치 받지 않은 통제집단( $M=2.55$ ,  $SD=0.89$ )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t=-1.567$ ,  $p=.118$ ). 실험 처치 이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죽음의 현저성 효과가 단순히 부정적 감정 반응의 영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변인 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죽음의 현저성	재난유형	피해자 비난
재난유형			.041		
피해자 비난	2.25	0.75	-.064	-.059	
공동체 탄력성 인식	3.07	0.63	.097	.030	.170**

\* :  $P < .01$ , \*\* :  $P < .001$

### 1) 죽음의 현저성과 재난 유형에 따른 피해자 비난의 차이

연구문제1에서 3까지를 분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을 분석한 결과 재난유형에 따른 피해자 비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문제2를 분석한 결과 죽음의 현저성 유무에 따라 피해자 비난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문제3을 분석한 결과 죽음의 현저성 유무와 재난 유형에 따라 피해자 비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1>에서와 같이 죽음의 현저성이 없는 경우에는 자연재난보다 인적 난의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높았다. 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t=1.349$ ,  $p=.180$ ). 방어적 귀인 이론에 따르면 유사성이 높은 경우 피해자 비난이 감소한다. 자연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재난으로 인적재난보다 상황적 유사성이 높은 재난이다. 따라서 상황적 유사성이 높은 자연재난의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 수준이 상황적 유사성이 낮은 인적재난의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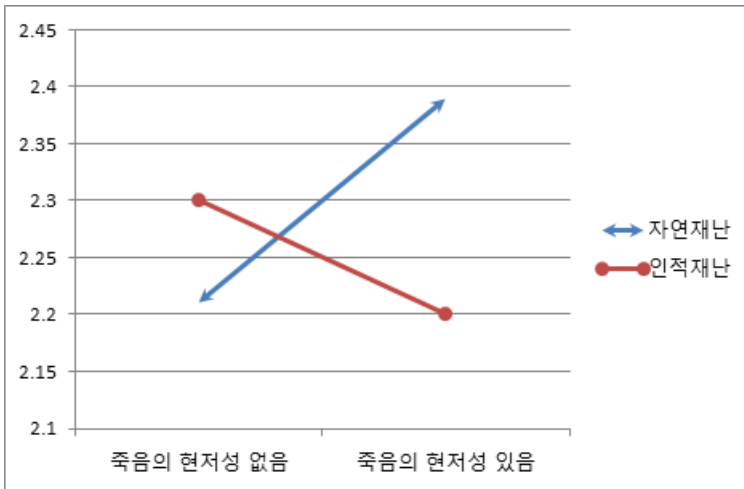
하지만 죽음의 현저성 상황에서는 인적재난보다 자연재난의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 $t=-2.662$ ,  $p=.009$ ). 아파트 붕괴 피해자들보다 지진의 피해자들은 인간의 취약성에 대한 자각을 높이고, 죽음의 현저성은 이러한 인간의 취

약성을 거부하는 방어 반응으로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피해자 비난을 증가시켰다.

**표 2.** 죽음의 현저성과 재난 유형에 따른 피해자 비난의 차이

	제III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수정모형	5.477 <sup>a</sup>	3	1.826	3.330	.020
절편	1271.042	1	1271.042	2318.380	.000
죽음의 현저성(A)	.456	1	.456	.832	.363
재난 유형(B)	.520	1	.520	.949	.331
A * B	4.458	1	4.458	8.131	.005
오차	134.868	246	.548		
합계	1408.972	250			
수정합계	140.345	249			

R<sup>2</sup> = .039 (수정된R<sup>2</sup> = .027)



**그림 1.** 죽음의 현저성과 재난 유형에 따른 피해자 비난의 차이

## 2) 피해자 비난과 공동체 재난 탄력성 간의 관계와 그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들

연구문제4-6까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4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 비난이 공동체의 재난 탄력성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어적 귀인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와 자신을 구분짓고 재난 피해의 책임을 돌리며 피해자를 비난한다. 분석결과 피해자 비난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재난 대응과 회복 능력에 대한 인식은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 비난이 내집단 편향으로서 예기치 않는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재난에 대한 통제감을 확보한다는 방어적 귀인 이론을 지지하면서, 내집단 편향으로서 피해자 비난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재난 대응과 회복 능력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문제5를 분석한 결과 재난 유형에 따라 피해자 비난이 공동체 탄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비난이 증가할수록 공동체 탄력성을 높게 인식하지만 재난 유형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문제6을 분석한 결과 죽음의 현저성 유무에 따라 피해자 비난이 공동체 탄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와 같이 죽음의 현저성이 없는 경우 피해자 비난을 높게 하는 집단이 피해자 비난을 낮게 하는 집단보다 공동체 탄력성 인식이 높았다( $t=-3.046, p=.003$ ). 하지만 죽음의 현저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 비난을 낮게 하는 집단의 재난 탄력성 인식이 증가해 피해자 비난을 높게 하는 집단과 재난 탄력성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216, p=.829$ ). 죽음의 현저성은 집단 정체성을 강화시켜, 내집단 편향이 낮은 사람들의 집단 정체성을 강화시켜 공동체 탄력성 인식을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죽음의 현저성 유무에 따라 피해자 비난이 재난 탄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beta$	t
상수	2.996***	54.858
피해자 비난	.259	3.503**
죽음의 현저성	.137	1.754
비난* 죽음의 현저성	-.219	-2.104*
R <sup>2</sup>	.058	
F	5.007**	

\*p< 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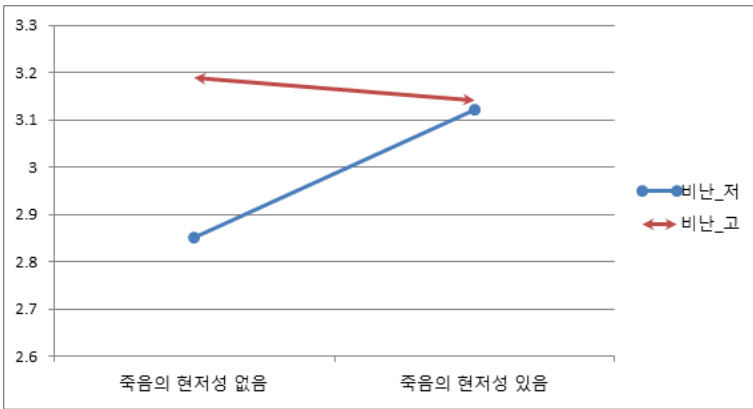


그림 2. 죽음의 현저성 유무에 따라 피해자 비난이 재난 탄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 5. 결론

방어적 귀인 이론에 따르면 재난 공중들은 피해자에게 재난 피해의 책임을 돌리며 내집단의 재난에 대한 통제감을 확보하고자한다. 이러한 피해자 비난에 대한 선행 연구의 논의에 따라 재난 유형과 죽음의 현저성에 따른 피해자 비난의 차이를 분석했다. 그리고 피해자 비난의 사회적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피해자 비난과 공동체 탄력성 인식 간의 관계를 파악하

고, 피해자 비난과 공동체 탄력성 인식 간의 관계에서 재난 유형과 죽음의 현저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지는 분석했다.

연구 결과 재난유형에 따른 피해자 비난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방어적 귀인 이론에서 피해자 비난에 차이를 주는 유사성 변인 중 상황적 유사성을 재난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자 비난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연재난의 경우 인적재난에 비해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상황적 유사성이 높지만, 이러한 상황적 유사성에 따른 피해자 비난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죽음의 현저성의 유무는 피해자 비난의 차이를 발생시키지만, 이 연구에서는 죽음의 현저성의 유무가 피해자 비난의 차이를 유도하지 못했다. 하지만 죽음의 현저성과 재난 유형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피해자 비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통제가 불가능한 자연재난의 피해자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도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시키고, 죽음의 현저성은 이러한 인간의 취약성을 거부하는 편향적 추론을 하게 하는데, 피해자에게 재난 피해의 책임을 돌리면서 비난을 증가시켰다. 특히 자연재난의 경우는 인간이 통제를 상실한 재난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었던 재난으로, 인적재난보다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취약성을 더 높게 자각시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비난을 높였다.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피해자 비난을 통해 재난과 같은 예기치 않는 사건에 대한 위협을 방어하고 통제감을 확보했는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 비난과 재난 대응과 회복 능력으로서 공동체 탄력성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피해자 비난은 공동체 재난 탄력성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피해자들에게 대한 비난을 높일수록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의 재난을 수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방어적 귀인 이론에 근거한 선행연구들이 밝혔듯이 피해자에게 재난 피해의 책임을 부과해서 피해자들과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재난에 대한 통제감을 높인다. 그리고

이렇게 높아진 재난에 대한 통제감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재난에 대한 대응과 회복 능력에 대한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단계 더 나아가 피해자 비난이 공동체 탄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죽음의 현저성에 의해 조절되었다. 죽음의 현저성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비난을 높게 하는 집단과 피해자 비난을 낮게 하는 집단 간의 공동체 탄력성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피해자 비난을 높게 하는 집단이 낮게 하는 집단보다 공동체 탄력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죽음의 현저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 비난을 낮게 하는 집단이 공동체 탄력성 인식이 높아져 피해자 비난을 높게 하는 집단과의 공동체 탄력성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공포관리 이론에 따르면 죽음의 현저성은 집단 정체성을 강화시킨다(Herrera & Sani, 2013). 죽음의 현저성은 피해자 비난을 낮게 하는 집단의 내집단 편향을 강화시키고, 이는 공동체 탄력성 인식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의 결과를 현실에 적용시키면 죽음의 공포가 현저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연재난의 피해자들에 더 많은 비난을 가할 수 있다. 재난 공중들은 재난 이후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죽음을 상기시키는 다양한 자극물을 접한 이후 인간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재난의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재난 발생에 대해 책임이 없는 무고한 피해자들이 비난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최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대형 재난에서 발생한 피해자 비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 메르스 감염 재난에서 감염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다가 메르스 확진을 받은 감염 피해자들 그리고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염된 의료진과 같이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과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와 같이 구조받지 못하고 희생된 학생들에 대한 비난은 재난의 공포를 방어하고 피해자들과 자신을 구별짓기 위한 내집단 편향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 비난을 예기치 못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내집단 편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위협의 문화이론에서도 찾

아볼 수 있다. 위협의 문화이론에 따르면 위협은 정치적이고 가치 판단의 대상이다(Dake, 1991). 따라서 누군가에게 위협을 책임지고 낙인화함으로써 자신 또는 내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한다(Douglas, 1966).

피해자 비난의 기제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과 모델이 있다. 이 연구에는 방어적 귀인 이론에 근거해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한 통제감을 확보하기 위한 내집단 편향으로 접근하였다. 방어적 귀인 이론에서 주장하는 피해자 비난의 기저에는 예기치 못한 사건에 의한 피해를 두려워하는 공포가 내재한다. 공포관리이론에서도 피해자 비난을 공포에 근거해 설명한다.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속적이고 가치있는 존재를 드러내는 친사회적이고 이타적인 행위로서 죽음의 불안을 방어하고자 하지만, 인간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사건이나 사람을 대면하게 되면 비난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한다. 결국 피해자와 거리를 두거나 비난하는 것은 안전하고자하는 동기, 훼손된 신념의 복구,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 비난은 공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 비난은 재난 상황에서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재난 대응 능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피해자 비난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피해자 비난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 보도의 선정성에 대한 자제가 요구된다. 사망과 피해를 과다하게 노출시키는 자극적인 보도는 재난 공중들에게 위협으로 자각되어 재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공중들의 이러한 반응에 대한 저널리스트들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재난 공중들의 자각도 중요하다. 재난 맥락에서 죽음의 공포와 인간의 취약성에 대한 자각이 피해자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민적 자각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영규 (1995). Disaster Planning : Should Be Agent-Specific or Generic. <지방행정연구>, 10권 1호, 199-230.
- 이흥표 · 최윤경 · 이재호 · 이홍석 (2016). 세월호 뉴스 노출을 통한 간접 외상의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권 3호, 411-430.
- Ahern, J., Galea, S., Resnick, H., Kilpatrick, D., Bucuvalas, M., Gold, J., & Vlahov, D. (2002). Television images and psychological symptoms after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Psychiatry*, 65, 289-300.
- Alicke, M. D. (2000). Culpable control and the psychology of blame. *Psychological Bulletin*, 126, 556.
- Arce, R., & Fariña, F. (1996). From jurors to jury decision making. A non model approach. In G. Davis, M. McMurrin, C. Wilson, & S. Lloyd-Bostock (Eds.), *Psychology, law and criminal justice.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research and practice* (pp. 337-343). Berlin: Walter de Gruyter.
- Bell, S. T., Kuriloff, P. J., & Lottes, I. (1994). Understanding attributions of blame in stranger rape and date rape situations: An examination of gender, race, identification, and students' social perceptions of rape victim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 1719-1734.
- Borah, P. (2009). Comparing visual framing in newspapers: Hurricane Katrina versus tsunami. *Newspaper Research Journal*, 30, 50-57.
- Bruneau, M., Chang, S. E., Eguchi, R. T., Lee, G. C., O'Rourke, T. D., Reinhorn, A. M., ... & Von Winterfeldt, D. (2003). A framework to quantitatively assess and enhance the seismic



- resilience of communities. *Earthquake Spectra*, 19, 733-752.
- Brewer, M. B., & Brown, R. J. (1998). Intergroup Relations. In D.T. Gilbert, S.T. Fiske, & G.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pp.554-594). New York: McGraw-Hill.
- Brown, D., & Kulig, J. (1996/97). The concept of resiliency: Theoretical lessons from community research. *Health and Canadian Society*, 4, 29-52.
- Castano, E., Yzerbyt, V., Paladino, M. P., & Sacchi, S. (2002). I belong, therefore, I exist: Ingroup identification, ingroup entitativity, and ingroup bia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135-143.
- Douglas, M. (1966). *Purity and danger*.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Ferraro, R., Shiv, B., & Bettman, J. R. (2005). Let us eat and drink, for tomorrow we shall di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and self-esteem on self-regulation in consumer choi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2, 65-75.
- Gailliot, M. T., Stillman, T. F., Schmeichel, B. J., Maner, J. K., & Plant, E. A. (2008). Mortality salience increases adherence to salient norms and valu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 993-1003.
- Goldenberg, J. L., McCoy, S. K., Pyszczynski, T., Greenberg, J., & Solomon, S. (2000). The body as a source of self-esteem: The effect of mortality salience on identification with one's body, interest in sex, and appearance monitor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118-130.
- Greenberg, J., Pyszczynski, T., & Solomon, S. (1986).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 need for self-esteem: A terror management theory. *Public Self and Private Self*, 189, 189-212.

- Greenberg, J., Pyszczynski, T., Solomon, S., Rosenblatt, A., Veeder, M., Kirkland, S., & Lyon, D. (1990). Evidence for terror management theory II: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reactions to those who threaten or bolster the cultural world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308-318.
- Greenberg, J., Pyszczynski, T., Solomon, S., Simon, L., & Breus, M. (1994). Role of consciousness and accessibility of death-related thoughts in mortality salience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627.
- Greenberg, J., Solomon, S., & Pyszczynski, T. (1997). Terror management theory of self-esteem and cultural worldviews: Empirical assessments and conceptual refinements.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9, pp. 61-139). New York: Academic.
- Herrera, M., & Sani, F. (2013). Why does ingroup identification shield people from death anxiety? The role of perceived collective continuity and group entitativity. *Social Psychology*, *44*, 320.
- Herzog, S. (2008). An attitudinal explanation of bias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 empirical testing of defensive attribution theory. *Crime & Delinquency*, *54*, 457-481.
- Hirschberger, G. (2006). Terror management and attributions of blame to innocent victims: Reconciling compassionate and defensive respon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832-844.
- Hirschberger, G., Florian, V., & Mikulincer, M. (2005). Fear and compassion: A terror management analysis of emotional reactions to physical disability. *Rehabilitation Psychology*, *50*, 246-257.
- Hirschberger, G., Ein-Dor, T., & Almakias, S. (2008). The

self-protective altruist: Terror management and the ambivalent nature of prosocial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 666-678.

Hobfoll, S. (2006). Guiding community intervention following terrorist attack. In Y. Neria, R. Gross, R. Marshall, & E. Susser (Eds.), *9/11: Mental health in the wake of terrorist attacks* (pp.215-228). New York: Cambridge.

Houston, J. B., Pfefferbaum, B., & Rosenholtz, C. E. (2012). Disaster news: Framing and frame changing in coverage of major US natural disasters, 2000-2010.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9, 606-623.

Iqbal, M. J., Ali, F. M., Khursheed, M. B., & Saleem, S. (2014). Analysis of role of media in disaster reporting in Pakistan. *European Scientific Journal*, 1, 570-575.

Jonas, E., Schimel, J., Greenberg, J., & Pyszczynski, T. (2002). The Scrooge effect: Evidence that mortality salience increases prosocial attitudes and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1342-1353.

Kasperson, R. E., & Pijawka, K. D. (1985). Societal response to hazards and major hazard events: Comparing natural and technological hazard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 7-18.

Kulig, J., Edge, D., & Joyce, B. (2008). Understanding Community Resiliency in Rural Communities through Multimethod Research. *Journal of Rural and Community Development*, 3, 77-4.

Kulig, J. C., Edge, D. S., Townshend, I., Lightfoot, N., & Reimer, W. (2013). Community resiliency: Emerging theoretical insight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1, 758-775.

Landau, M. J., Johns, M., Greenberg, J., Pyszczynski, T.,

- Martens, A., Goldenberg, J. L., & Solomon, S. (2004). A function of form: Terror management and structuring the social worl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190-10.
- Leiserowitz, A. A. (2004). Day after tomorrow: study of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Environment: Science and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46*, 22-39.
- Littlefield, R. S., & Quenette, A. M. (2017). Crisis Leadership and Hurricane Katrina : The Portrayal of Authority by the Media in Natural Disasters.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35*, 26-27.
- Malle, B. F., Guglielmo, S., & Monroe, A. E. (2014). A theory of blame. *Psychological Inquiry*, *25*, 147-186.
- McGregor, H. A., Lieberman, J. D., Greenberg, J., Solomon, S., Arndt, J., Simon, L., & Pyszczynski, T. (1998). Terror management and aggression: Evidence that mortality salience motivates aggression against worldview-threatening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590-605.
- Norris, F. H., Stevens, S. P., Pfefferbaum, B., Wyche, K. F., & Pfefferbaum, R. L. (2008). Community resilience as a metaphor, theory, set of capacities, and strategy for disaster readin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1*, 127-150.
- Pyszczynski, T., Greenberg, J., & Solomon, S. (1999). A dual-process model of defense against conscious and unconscious death-related thoughts: an extension of terror management theory. *Psychological Review*, *106*, 835-845.
- Quarantelli, E. (1985) What is a Disaster? The Need for Clarification in Definition and Conceptualization in Research., In S. Solomon (Ed.), *Disasters and mental health:*

- Selected contemporary perspectives. (pp.41-73).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Reynolds, B., & Seeger, M. W. (2005). Crisis and emergency risk communication as an integrative model.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Research*, 10, 43-55.
- Rosenblatt, A., Greenberg, J., Solomon, S., Pyszczynski, T., & Lyon, D. (1989). Evidence for terror management theory: I.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on reactions to those who violate or uphold cultural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681-690.
- Routledge, C., & Arndt, J. (2008). Self-sacrifice as self-defence: Mortality salience increases efforts to affirm a symbolic immortal self at the expense of the physical self.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8, 531-541.
- Shaver, K. G. (1985). *The attribution of blame: Causality, responsibility, and blameworthiness*. New York: Springer-Verlag.
- Solomon, S., Greenberg, J., Schimel, J., Arndt, J., & Pyszczynski, T. (2004). Human awareness of death and the evolution of culture. In M. Schaller & C. Crandall (Eds.), *The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culture* (pp. 15-40). Mahwah, NJ: Erlbaum.
- Tajfel, H. (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 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Basil Blackwell.
- Van Prooijen, J. W. & van den Bos, K. (2009). We blame innocent victims more than I do: Self-construal level moderates

responses to just-world threa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 1528-1539.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Walter, J. (2004). *World disasters report 2004: Focus on community resilience*. Kumarian Press.

투 고 일 자: 2019년 04월 05일

심 사 일 자: 2019년 08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08월 30일

## Abstract

# A Study on victim-blaming and community resilience:

Focus on disaster types and mortality salience

**Seungkyung Ham**

Researcher, Ewha Communication & Media Research Center

**Yungwook Kim**

Professor, School of Communication & Media,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plained the mechanism by which victim blaming occurs as out-grouping of victi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fensive attribution theory and analyzed differences in victim blaming according to types of disasters and mortality salience.

It also examined the in-group bias reinforced by mortality sa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 blaming and community resilience. The findings showed that mortality salience increased blaming victims in a natural disaster rather than in a man-made disaster. Ironically, victim blaming which leads to the out-group categoriz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level of community resilience. The effects of victim blaming on community resilience in disasters were moderated by the mortality salience, which contributed to heightening the level of community resilience among the low-level victim blaming group. Theoretical ramifications and practical applica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study results.

**KEYWORDS** victim blaming, natural disaster, man-made disaster, mortality salience, community resilience